

4/7/19

설교 제목: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2:13-17

- (막 2:13)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 (막 2:14)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 (막 2:15) 그의 집에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 (막 2:16)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 (막 2: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중풍 병자를 고치신 후 다시 갈릴리로 나가셨고 거기서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세리 레위를 보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막 2:13)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막 2:14)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복음을 쓴 마태와 동일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인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리는 본래 사람들과 잘지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 내고 싶어하고 세리는 세금을 많이 징수하려고 하니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지요.

더군다나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해다가 로마 정부에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세리를 유대인 가운데서 뽑았으므로 결국 세리들은 같은 민족에게서 악착같이 세금을 갈취해다가 로마에 바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리들은 정부에서 걷으라고 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 착복했으며 로마 정부도 그것을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런 연유들로 유대 사람들은 세리를 민족의 반역자로 여기며 아주 혐오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피해 다녔구 일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일제 시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때 못 배우고 돈 없어 그동안 억눌려 살았던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일본인들보다 더 악질로 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그때 일본 놈들보다 더 악랄했던 놈들이 완장차고 일본 놈들 앞잡이질 했던 한국 놈들이었다고 하는 말씀들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유로 아무도 기꺼이 하지 않으려는 레위를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는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고 그때의 상황을 아주 간략히 기록했지만 우리는 당시 레위의 깊은 속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는 세리 일을 함으로써 돈은 모았지만 마음은 공허함과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등쳐 먹으면서 사는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혹시 테러를 당하지는 않을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 하루도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두들 자신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경멸하고 멸시하며 만나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레위는 어떻게든 이런 삶을 청산하고 싶었으나 배운 도적질 이외에 다른 어떤 일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날도 상하고 지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세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소문에 들던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있는 쪽을 향해 오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는 예수라는 분에 대해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고 고귀한 분이시라 천하고 죄인인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자신을 향해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레위의 가슴은 방망이질 합니다.

저분은 사람의 마음 속까지 꿰뚫어 보신다는데 오셔서 다짜고짜 “야! 이 도둑놈아, 너는 매국노이자 민족의 반역자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떨하나?

레위는 일부러 예수님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부드러우면서도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레위는 하던 일을 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죄 용서의 의미입니다.

‘너를 용서한다. 너의 과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너는 이제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무한 감사와 감격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레위는 주님께 자신의 일생을 맡기기로 결단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 그의 가슴은 그동안 자신을 억눌렀던 죄책감과 수치로부터 해방되어 환희로 가득찼습니다.

그는 세상에 외칩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노라고”

이제 그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서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세리인 레위를 부르신 것에 대해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세리 레위로 본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불쌍한 한 영혼 레위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마음 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 상처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겨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셨기에 그를 도와 주시려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불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의 고통, 상처, 갈등, 갈급함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찾아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초청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의 초청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초청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레위는 결단을 하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지껏 살아왔던 삶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그가 주인 삼았던 것들,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인간은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벌이고 많은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했습니다.

(막 2:15) 그의 집에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레위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 세리와 죄인들을 집으로 초대해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레위의 초청에 기꺼이 응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으며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관련하여 바리새인들의 해석대로 따르지 않는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이 천민으로 비하하는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레위는 그런 죄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 예수님을 만나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도둑 놓이고 민족의 배신자이자 반역자인 자신을 받아주신 예수님이 그들도 받아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신처럼 예수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고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전도합니다.

자신이 만난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자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만난 그 주님을 만나게 해 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참 기쁨과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참 생명을 다른 사람도 얻어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 하지만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됩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간증하면 됩니다.

그들도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막 2:16)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 당시에 동석해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상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였고 또한 같은 부류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즈음에도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지만 당시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세리들 및 죄인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식사를 나누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란 바리새파에 속하는 서기관들을 지칭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과 유전을 지키는데 있어 철저한 보수주의자들이며 의식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배타적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존재 의의를 율법을 지키는데 두었고 자신들의 해석에 따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율법을 어겨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여긴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선포하십니다.

(막 2: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의인과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건강한 자인지 병든 자인지, 또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의롭고 세리와 죄인들은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들이야말로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형식적인 죽은 제사만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의인들은 가만히 두면 알아서 잘 할 것이니 내버려 두고 오직 죄인들만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10)

모든 사람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터무니없이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고 생각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병자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와 은혜로 죄를 용서 받고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의 이땅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흑암 속에서 사는 주변의 친지나 친구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들을 여러분이 만난 예수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지나 친구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그들을 진정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을 100% 믿고 친지나 친구 이웃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세리였던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랐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 기쁨으로 충만해지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어 고통받는 불쌍한 동료와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과 같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변화 받은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셔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